

길거리 시신 수습도 못해...美, 아이티 대사관에 군 투입

총리 사퇴에도 혼란...깡단 두목 "계속 싸울 것" 유엔, 구호품 조달 위한 '공중가교' 설치하기로

깡단의 무장 폭력으로 무법천지가 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의 치안 상황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

공분의 대상이던 아리엘 앙리 총리가 사의를 밝혔지만, 깡단이 여전히 활개를 치면서 혼란이 겹잡을 수 없이 가중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번 달 깡단은 감옥 2곳을 습격해 수천명의 범죄자를 탈출 시켰고 국제 공항과 주요 항구, 경찰서 최소 12곳 등을 습격했다.

총격전과 방화가 계속되면서 피해자도 속출, 포르토프랭스 시내에는 시체가 쌓여 있지만 이를 수습할 공무원도 없는 상태라고 WP는 전했다.

악화하는 치안 상황에 미국은 포르토프랭스 주재 자국 대사관에 군을 재차 파견했다.

미 남부사령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병대 대테러팀(FAST)을 포르토프랭스 주재 미국 대사관에 배치했다며 이들이 대사관의 강력한 안보를 유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오후에 배치된 대테러팀은 미군의 두 번째 대사관 투입이라고 WP는 전했다.

앞서 투입된 병력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대사관 비필수 인력 대피를 위해 군 헬기를 동원한 철수 작전을 수행했다.

남부사령부는 이번에 파견된 대테러팀이 현재 주둔 중인 대원들과 임무를 교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폭동을 주동한 깡단 연합체 두목 지미 세리지에는 폭력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다.

그는 현지 W라디오를 통해 "총리의 사퇴에 신경 쓰지 않는다"며 "아이티 해방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중남미의 최빈민국 아이티가 극심한 치안 불안에 겪고 있는 가운데 포르토프랭스에서 시위대가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있다. 중남미 국가 협의회인 카리브공동체가 성명을 통해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의 사임을 밝혔지만 폭력 시위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EPA=연합뉴스

발했다. '바비큐'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세리지에는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이 암살된 이후 세력을 규합해 나라를

'축대밭'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지목된 인물로, 유엔과 미국 재무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세리지에는 경찰 당국

에 "앙리 총리를 체포하라"고 요구하며 "무기로 국가를 해방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은 아이티가 최악의 치안 실패로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에 처하자 아이티와 인접국 도미니카공화국 사이에 구호품 전달을 위한 공중가교(airbridge)를 설치하고, 위기관리 인력을 현지로 파견하기로 했다.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현재 아이티 주민 400만명 이상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처한 것으로 집계된다.

미주 최빈국으로 꼽히는 아이티에서는 2021년 7월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깡단 폭력에 따른 치안 악화와 빈곤 속의 행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지난해 1월에는 이 나라 마지막 선출직 공무원이었던 상원 의원 10명 임기마저 종료되면서 입법부까지 공백이 생겼다.

최근에는 앙리 총리의 사임을 촉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촉발했고, 깡단은 기물 파손과 약탈 등 범죄를 저지르며 소요 사태를 더욱 부추겨왔다.

결국 앙리 총리는 지난 11일 자신이 사임하고 과도위원회로 권력을 이양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바이든·트럼프 대결 확정에도 유권자 25% "지지후보 변경가능"

바이든 38%·트럼프 40%...박빙대결 속 부동층 향해 촉각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차범위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역대 최고의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전체 유권자 4명 중 1명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USA투데이가 미국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8-11일 진행해 1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오차범위 ±3.1%포인트)에 따르면 다자 가상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0%로 바이든 대통령(38%)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 9

%, 무소속 코넬 웨스트 및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 각 2% 등이었다.

특히 전체 응답자 가운데 25%는 선거전에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 가운데 14%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중에는 15%가 각각 지지 후보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해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제3당 후보 가운데서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의 지지자 75%, 질 스타인 후보 지지자 94%가 각각 지지 후보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1월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제3당 후보의 지지층이 약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동시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

회라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전체 유권자 가운데 15%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두 명 모두에게 거부감을 가진 이른바 '더블 헤이터'(Double hater)였다. 이들 가운데 44%는 제3당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대선의 중요 이슈로 경제·인플레이션을 꼽은 응답자가 29%로 가장 많은 가운데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3%는 현재 경제 상태를 '경기 회복 진행 중'으로 평가했는데 이는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런 평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을 향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7일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 이후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로, 지난해 12월 39%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합뉴스

덴마크, '여성 징병제' 도입한다

노르웨이, 스웨덴 이어 유럽에서 세 번째

덴마크가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복무기간 연장과 여성 징병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덴마크 여성들은 현재도 자원하면 군 복무를 할 수 있으며 전체 병력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덴마크가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면 2015년 노르웨이, 2017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된다.

덴마크군은 직업 군인 7천-9천명과 의무 복무 기간 동안 기본 군사훈련을 받는 징집병으로 구성돼 있다.

남성들은 18세가 되면 군에 입대해 4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하지만 자원자가 많아 모든 남성이

日법원, 옴진리교 교주 사형 6년 만에 유골 반환 명령

지난 1995년 일본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사건 등의 주모자로 복역하다가 2018년 사형된 옴진리교 교주 아사하라 쇼코(본명 마쓰모토 지즈오·63)의 유골과 머리카락을 딸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이 현지 법원에서 내려졌다.

14일 아사하시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지방법원은 아사하라 둘째 딸이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하려 한다"

면서 2022년 10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유골반환을 요구하며 낸 소송에서 "반환을 거부할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며 전날 이처럼 판결했다.

2018년 7월 아사하라의 사형이 집행된 뒤 그의 유골 등을 둘러싸고 딸들 사이에 소유권 다툼이 일어 결국 소송전 끝에 차녀가 2012년 7월 최고재판소(대법원)에서 승소,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사하라 유골이

군에 가지는 않으며 추첨을 통해 입대 대상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여성 징병제 도입과 함께 복무기간도 남녀 모두 11개월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2028년까지 최대 6천명으로 구성되는 보병여단을 창설하고 지상 대공방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국제질서가 도전 받는 상황이라면 전쟁과 파괴가 아니라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재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차녀에게 인도되면 옴진리교를 잇는 종교단체나 신자에게 다시 넘겨져 이용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칠 것이라며 인도를 거부했다.

아사하라의 1980년대에 신종종교인 옴진리교를 만든 교주로, 옴진리교 신자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1995년 3월 20일 도쿄 지하철 독가스 테러사건 등을 일으켰다. 테러사건에 의한 사망자는 무려 29명이고 부상자는 6천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Petco cav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 DAYS HEALTH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디움 상가 2층

DJI HDKorea

HDKorea (주)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해보세요"

임동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빌드점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